

## ‘12·3 비상계엄’ 47일 만에尹 결국 구속

‘국헌문란 목적 폭동’ 혐의 소명...법원 “증거 인멸 염려”  
최대 20일 구속 상태로 수사받아 열흘 조사 뒤檢 이첩  
현정사 최초...현직 대통령도 범죄 저지르면 구속 선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47일 만인 19일 전격 구속됐다. ▶관련기사 2·3·4면  
현직 대통령 신분에 있는 자가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현직 대통령도 범죄를 저지르면 예외 없이 구속된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이라

평가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날 3일 위헌·위법한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이송돼 10시간 40분 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됐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2면에 계속 /김진수기자

윤 대통령 구속 경과 및 향후 전망

1월 1일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3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재발부
6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재발부
7일	서부지법, 체포영장 재발부
15일	공수처·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체포. 정부과헌정사 공수처에서 약 10시간 40분 피의자 심문 조사 후 서울구치소 구금.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상 청구
16일	법원, 윤 대통령 체포적부상 청구 기각. 체포상태 유지
17일	공수처,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18일	서부지법,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윤 대통령 영장심사 출석 4시간 50분 만에 종료
19일	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윤 대통령,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 통해 수용 예정. 체포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
24일	공수처, 검찰로 사건 이첩 (체포 후 10일)
2월 2일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소 (체포 후 20일 이내)
5일	윤 대통령,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 통해 수용 예정.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소 신청
8일	법원, 윤 대통령 1심 판결 선고 (체포 6개월 구속)

연립뉴스

## 폭력에 무너진 법치 ‘무법천지’ 대한민국

尹 지지자들 서부지법 습격...“판사X 나와라” 무차별 파손  
경찰 기동대 등 1천400명 투입해 진압 45명 현행범 체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관련기사 2·3면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무법시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에도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3시간 20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 방패나 경찰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다. 곳곳에서 “XX 다 죽여 버려” 등 격한 욕설로 위협하면서 지지

자들은 경찰을 밀어붙였고, 바리케이드는 속절 없이 무너졌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도 난사했다.  
출입구 서터를 울리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렸다. “판사 X 나와라”라고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  
차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지고 부서졌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 이들 중에서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께 경찰이 법원 내부로 대규모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집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리던 일부



폭동 휩쓸고 지나간 서부지법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 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지지자는 “이것은 대통령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느냐”며 서로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난입 장면을 모두 생중계로 찍던 유튜브는 자신이 현행범 체포되는 장면마저 라이브 중계했다. 경찰에 검거되자 자신은 “팔려 들어왔다”고 했다.  
지지자들의 저항이 거세자, 경찰은 신체 보호복(진압복)을 입고 경찰봉을

갖춘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총 1천400여 명을 동원했고 오전 6시께에는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45명이 견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돼 일선 경찰서로 연행됐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가 85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자 수가 더 늘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일부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밖에서도 지지자들이 취재진을 위협하고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빼앗거나, 사태와 무관한 행인을 진보 쪽 지지자 아니냐고 물어세우는 등 크고 작은 실랑이가 계속됐다.  
“밖이 궁금해 나와봤다”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붙잡아 “중국인 아니냐”며

취조하는 시위대에게 학생의 아버지가 항의하는 상황도 목격됐다. /연합뉴스

**Today**  
설은 다가오는데 소비는 ‘공공’ 12면  
‘쉬는’ 청년 41만명...1년새 12%↑ 13면  
안세영, 새해 들어 2주 연속 우승 16면

**OK! Now Jeonnam**

2025년 1월부터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1세(12개월)부터 18세까지 월 최대 20만원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1세가 되는 생일일에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정부24 접수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내용
'24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생후 12개월이 된 아동	출생아동과 부모 모두가 함께 전남에 거주	도 수당 10만 원 시군 수당 10만 원 *시군 형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전라남도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울타리 전라남도